

'720조원 청구서'...우크라이나-미국, 광물협정 타결 임박

천연자원·기반시설 수출 절반 美 기금으로 넘겨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없어"...美 "경제협력으로 보장 암시"

젤렌스키 "10세대 걸쳐 갚아야 할 규모지만 해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해 보인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도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5000억달러(약 720조원)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제시하지 않아 그간 양국 입장이 팽팽선을 달렸다.

스티브 윌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2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 "난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은 지난주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를 망설이는 것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양국이 우크라이나의 천연 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기질을 고려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주게 할만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협정문의 첫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안보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맹비난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계속하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확보해 전날 보도한 협정문 초안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 뿐만 아니라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1일자로 작성한 이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입은 미국이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기금에 투입되며, 우크라이나는 기금액이 5000억달러(약 720조원)에 달할 때까지 계속 돈을 낼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2024년 자원에서 얻은 실제 수입은 11억달러에 불과했으며, 5000억달러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약속한 금액의 4배를 넘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2024년 자원에서 얻은 실제 수입은 11억달러에 불과했으며, 5000억달러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약속한 금액의 4배를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협정을 미래 지원의 조건이라기보다 미국이 그동안 제공한 지원에 대한 '청구서'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우크라이나로서는 부담이다.

초안은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지원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미국이 수입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의 지하 자산과 시설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돌려받을 경우 수백만 영토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입은 절반이 아닌 66%를 미국의 기금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1일자 초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이전 초안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포함하지 않았다.

스콧 베넷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초안에 안보 보장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도 협정이 미국의 보장을 암시(implicit guarantee)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넷 장관은 "난 경제 안보 보장이라고 부른다.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자산을 땅을 사들여,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미래 안정에 도움이 이해관계가 클수록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안보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정은 체결될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렛대를 제공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진정한 협력관계라는 강력한 신호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협정 체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10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무엇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미국의 조건이 '너희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우리가 (협정 체결을) 강요받고 그것 없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저녁부로 5000억달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약 미국의 조건이 '너희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우리가 (협정 체결을) 강요받고 그것 없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저녁부로 5000억달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 대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성상 앞에 사람들이 꽃과 쪽지들을 전하며 교황의 회복을 기원했다. /연합뉴스

교황 "우크라이나 3주년 부끄러운 일"

페렴으로 입원...병세 위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폐렴으로 입원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교황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교황은 입원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전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공개한 삼중기도 연설문에서 "내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모든 인류에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희생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를 표한 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등 모든 무력 분쟁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전 세계에서 보내온 애정과 위로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보낸 편지와 그들이 크게 감동했다"고 밝혔다.

88세의 고령인 교황은 이날 초부터 기관지염을 앓다 지난 14일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했으며 양쪽 폐에 폐렴이 확인돼 치료받고 있다.

바티칸은 이날 오전 "밤이 평온하게 지나갔고 교황은 휴식을 취했다"고 공지했다고 AFP, AP 등 외신들이 전했다.

다만 이날은 이전의 공지와 달리 교황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는지 등은 알리지 않았다.

얼마 뒤 바티칸은 교황이 복합적인 폐 감염으

로 여전히 위중한 상태지만 의식이 있고 고농도 산소 치료와 수혈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인 임상 검사도 받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날 늦은 저녁에 발표한 추가 공지에서 바티칸은 교황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하다고 전했다. 전날 밤 이후 추가적인 호흡기 위기는 없었지만 계속 고농도 산소 보충을 받고 있고 전날 처음 발견된 혈소판감소증은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혈액 검사에서 초기의 경미한 신부전증이 나타났지만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임상 상태가 복잡하고 약물요법의 피드백을 기다리기 위해 예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표를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바티칸은 전날 저녁에는 "교황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며 "따라서 어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황이 위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주일인 이날 열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미사와 부제 서품식은 리노 피시첼라 대주교가 집전했다.

피시첼라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비록 병상에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것이 주님께서 교황이 병환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한편, 인구의 80%가량이 가톨릭인 필리핀을 비롯해 한국, 케냐,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는 천주교도들이 주일 미사에서 교황의 회복을 기원했다.

독일 총선 기민당·기사당연합 1위...3년만에 보수정권 예고

극우 AfD, 원내 제2당 전망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민당(CDU)·기사당연합(CSU) 연합이 올라프 슐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과 극우 독일연대당(Af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된 공영 ARD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CDU·CSU 연합의 예상 득표율은 29.0%로 AfD(19.5%), SPD(16.0%)를 크게 앞섰다. 녹색당은 13.5%, 좌파당 8.5%로 예측됐다. 친기업 자유민주당(FDP)은 4.9%, 포퓰리즘 성향 자라바렌크네이트연합(BSW)은 4.7%로 원내 진출이 불투명하다.

선거법상 정당투표 득표율이 5%를 넘거나 지역구 299곳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

ARD방송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체 630석 가운데 CDU·CSU 연합이 210석을 가져가고 AfD에 145석, SPD 118석, 녹색당 94석, 좌파당에 62석이 배분될 것으로 계산했다.

정확한 의석 배분은 FDP와 BSW의 원내 진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들 정당이 기준을 넘겨 의석을 가져갈 경우 다른 정당들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CDU·CSU 연합은 의석 배분이 확정되는 대로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CDU·CSU 연합은 지난해 11월 일명 '신호등' 연정 블록으로 시작한 이번 총선 기간 내내 30% 안팎 지지율로 선두를 지켜왔다.

CDU·CSU 연합 주도도 연정이 구성되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한 AfD는 2021년 총선 때 10.4%의 배에 가까운 득표율로 원내 제2당에 오를 전망이다.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정 구성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는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m ²]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4타경 81556	1	동구 필동대로70, 112동 21층 2101호 [계림동, 게릴라이파크스케이프] 62.9856㎡	아파트	511,000,000 511,000,000	
2024타경 82146	1	광산구 신창로131번길10, 102동 3층 302호 [신창동,신창1차남양휴트] 103.2617㎡	아파트	461,000,000 461,000,000	
2024타경 83675	1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104, 103동 11층 1103호 [월계동,건영아파트] 86.11㎡	아파트	249,000,000 249,000,000	민간임대주택
2024타경 84111	1	서구 금항로293, 103동 2층 201호 [화정동,꽃담마을아-편한세상] 185.78㎡	아파트	844,000,000 844,000,000	

[기타]

2024타경 700 2024타경 68683 [중복]	1	북구 연제동 1038-5 7036㎡ 공장차량법제6조목특별지기재와갈을 제외 234㎡ [지상소재전력선내박스1식매각제외]	공장용지	7,671,798.620 7,671,798.620	일괄매각,제외외건 포함,공장차량법제6조기계기구 [7점소재법령] 포함, 공장재단목목의외 기계기구등번지내 다수소재 [매각제외],광주첨단과학기산업단지2지구내위지,지방상업단지,산업용성구역,연구개발지구	
		북구 첨단연선로 55 [연제동,제기동호] 1층 999.76㎡ 2층499.39㎡ 부속건물 공장[사무실,속소] 1.2층각390㎡ 단층 창고31.95㎡ 공장차량법제6조목특별지기재와갈을 제외	공장	10㎡	999,760.000 999,760.000	
2024타경 7183	1	동구 55 단층 1,035.54㎡ 부속건물 단층 창고 10㎡ 공장차량법제6조목특별지기재와갈을 제외	공장	10㎡	914,007.200 914,007.200	
		동구 55 단층호 단층 공장809.6㎡ 부속건물 단층 화장실15.96㎡ 공장차량법제6조목특별지기재와갈을 제외	공장	10㎡	914,007.200 914,007.200	
2024타경 77250	1	광산구 도현동 349-68 2443㎡ 공장차량법제6조목특별지기재와갈을 제외	주요소용지	7,911,870.740 7,911,870.740	일괄매각,공장차량법제6조기계기구 [유류차량탱크5식 및 자동제차기크리미어1식] 포함,제외외건,지방상업단지,산업용성구역,연구개발지구	
		동소 349-40 위령골차량장지리시설 1층주요소,사무소284.69㎡ 2층사무소171.05㎡ 부속건물 단층 세차실36㎡ 공장차량법제6조목특별지기재와갈을 [물건번호1:부속건물단층세차실36㎡열실]	주요소용지 기타	10㎡	7,911,870.740 7,911,870.74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3타경 6534	대	나주시 중앙동 80-12 873㎡	대	2,071,962.500 2,071,962.500	일괄매각,목목2지
2024타경 2072 [병합]	1	나주시 나주로 174-1 1층188.955㎡ 2층 351.32㎡ 3층248.42㎡ 제외외 창고등9.8㎡ [물건번호1:건물1층일부물건임대임대업종,2,3층공실[현황조사보고서상조]]	근린시설		
2024타경 80867	1	광산구 광산로61, 13층 1302호 [송정동,필릭스 골드주상복합] 44.2814㎡	오피스텔	164,000,000 164,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4타경 74497	1	화순군 화순읍 만수길 13-1 1층51.16㎡ 2층 33.53㎡ 제외외 차고등24.6㎡ 대당광3kw	단독주택	413,625.390 413,625.390	일괄매각,제외외기 계기구 [대당광3kw] 포함
		화순군 화순읍 수안리 542 386㎡ [물건번호1:제 시외건물및수목포함]	대		

●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발행실 변경으로 인한 행사법규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음.
② 공표자 및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